



## 프레스비테리언스 투데이 (Presbyterians Today) 2021년도 사순절 묵상집

### 살롬, 평화로의 여정 평화와 온전함을 향한 사순절의 여정

#### 서론

사순절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다. 이는 부활절 전 40일, 여섯 주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준비 기간이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올해에는 2월 17일 재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엄숙하게 시작된다. 그날 우리는 불에 태운 종려나무 가지의 재를 이마에 바르고,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나 사순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의 죄나 가치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간이 아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 2021년도 사순절의 주안점

사순절은 기도, 금식, 봉사, 묵상의 시간이지만,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목록이 되어야 한다. 올해 사순절을 맞아, 평화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인 **살롬**의 선물을 묵상해 보자. 성경에서, 살롬은 평화 뿐 아니라 평온, 안녕, 온전, 건강, 복지, 완전, 안전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살롬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또다시 세상에 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서, 살롬은 만남의 첫 인사이자, 헤어짐의 작별 인사이다. 만나는 인사로 "살롬"을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와 안녕으로 채워지라는 희망찬 축복의 한 형태이다. 건강과 번영,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살롬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의미하며,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다. 이는 당신의 삶 속에서, 또 당신이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모습 속에서 표현된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살롬을 깊이 숙고하게 한다. 우리는 평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전염병과 싸우고 인종 폭력과 씨름하면서, 논쟁이 많았던 선거를 막 끝냈다. 가난, 불행, 절망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 만연해 있다. 폭력은 많은 이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곳 미국,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전 세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이 묵상집은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찬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탐구해야 한다. 살롬에 대한 탐구는 관계적이고 연결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부인하게 되면, 나의 평화도 성취될 수 없기에 이는 관계적이다.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는 연결적이다. 살롬은 공동체를 건설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이다. 성경은 살롬의

필요성을 선포한다. 평화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27a)

이번 사순절에는 서로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선물인 살롬을 향해 나아가자. -  
지미 호킨스

## 저자들에 대해

지미 호킨스 목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장로교 공공정책 선교 사무처 처장이다. 국제문제 담당인 캐서린 고든, 국내 빈곤 문제 담당인 크리스찬 브룩스, 국제 연합(UN)에 대표로 나가 있는 수 립, 그리고 국제 연합(UN)의 선교 전문가인 아이비 로페디토가 올해의 묵상집을 위해 글을 썼다. 공공정책 선교 사무처는 워싱턴 D.C.에 있는 본 교단의 사회 참여 단체이며 사회적 증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washington](http://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washington)

## 사순절 묵상집 활용

### 매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순절의 각 주마다 살롬의 많은 정의 중 하나를 다루는 새로운 주제를 접하게 된다. 그 주제를 묵상하며 한 주를 시작하도록 당신은 초대될 것이다. 매일의 묵상집을 읽기 전에 기도하며 숙고하라. 평화의 왕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계절에 성령께서 당신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프레스비테리언스 투데이*는 또한 평화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당신이 시각적으로 깨닫도록 할 것이다. 천 조각과 직물로 된 표지를 사용하여 매주 또는 매일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쓰고, 그것들을 정원에 있는 나무나 집 계단의 난간, 또는 울타리에 붙이라. 그 천이 바람에 날리게 함으로써, 평화가 가능하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의 지역사회에 전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 지역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살롬에 대해 나누고, 평화의 나무, 난간이나 울타리에 그들의 기원을 더하도록 초대하라. 부활절 아침까지 수백 개의 평화의 기도가 바람을 타고 불어와 새로운 날을 희망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하자. *프레스비테리언스 투데이* 편집자인 도나 프리슈크네히트 잭슨에게 당신의 평화의 기도 나무, 난간, 울타리를 알려주라:

[Donna.Jackson@pcusa.org](mailto:Donna.Jackson@pcusa.org)

---

##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첫째 주

### 살롬: 정의로의 길

지미 호킨스 저

**생각해 보라:** 2021년 사순절 재의 수요일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냉정하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신다 - 우리가 정의와 용서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용서, 정의를 우리 손에서 마음대로 했던 때에 대한 용서이다. 이번 주 정의의 주제인 “살롬으로의 길”은 당신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초대한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당신이 용서받았음을 알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는가? 이제 당신이 용서를 보류하고 당신만의 정의를 추구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되었는가? 깨어진 관계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치유되었는가? 만약 당신이 추구했던 정의가 하나님께 드러졌다면 무엇이 달라졌겠는가?

**정의를 위한 기도로 평화의 기도 "나무"를 시작하라.** 이번 주 묵상집을 읽을 때, 당신이 사는 지역사회와 세계의 정의를 위한 기도를 천 조각에 쓰라. 그리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곳에 그것들을 걸어두라.

## 2월 17일, 재의 수요일 예루살렘 성지의 평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11*

히브리어로 평화란 살롬이라는 단어다. 구약성경에는 살롬이란 단어와 관계된 성구가 236번 등장한다. 그 단어는 평화, 조화, 온전, 완전, 번영, 복지, 평온을 의미할 수 있다. 중동 전역에 걸쳐 이 말은 첫인사와 작별 인사로 사용된다. 유대인의 인사는 *살롬 알레이켄*으로,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뜻이다.

평화는 종종 전쟁 또는 다툼의 부재로 정의된다. 평화에는 완성이나 완전함을 나타내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 있다. 이는 하나님과 인류, 심지어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표현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참여와 관련된다.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서 발현하는 균형과 조화의 상태이다. 평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평화를 추구하도록 부름 받았다. 어떤 공동체든 평화가 없다면, 갈등을 가져오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삶과 세계 모든 지역에, 특히 평화의 왕이 축복한 지역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오늘, COVID-19 시대 속에 온라인 상에서 재를 바르며 시작되는 사순절에, 우리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기원한다. 특히 우리는 성지의 평화의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세계의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동은 평화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성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작은 기독교 공동체는 훨씬 더 많은 무슬림과 유대인 사이에서 강한 사회적 압력을 경험한다. 그들의 경험은 주민과 이익단체가 이스라엘 점령의 일환으로 토지 압수, 임의 구금 및 집단 처벌을 문서화함에 따라 서안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경험과 유사하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폭력을 종식하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부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를  
평화와 정의의 행동으로 이끄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18일, 목요일

### 분열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마태복음 5:9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함으로써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천한다. 성경에 의하면, 샬롬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두려움, 불의, 무질서 및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단지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거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행복한” 또는 “축복된” 이들이라고 부르셨다. 신약의 헬라어에서 축복 또는 행복을 뜻하는 단어는 "넘치도록 행복하거나 축복받았다"라는 뜻의 *마카리오*이다

평화를 뜻하는 아랍어는 *살람*으로서, 이것은 또한 온전, 안전, 안녕, 좋은 의도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다. 아랍어에서 '화평케 함'의 어원은 술이다. 이는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선의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샬롬은 조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일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상황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곤경에 대해 불편해하면서도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한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어, 2,000년 만에 최초의 유대인 국가를 만들었다. 이 지역 대부분의 사람은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지역에 살았던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이었다.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과 5개의 아랍 국가(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간에 발발했다. 700,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유대계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갇힌 가자 지구에 정착하면서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통제했다. 2018년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주민은 1948년의 전쟁 난민과 그 후손들이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다. 그들은 법, 거주지 퇴거, 전기 차단, 이스라엘 군사 재판소 기소, 이스라엘 감옥 수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살람”이라는 인사를 한다.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은 평화를 만들라는 부르심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다른 이들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인사하는 것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주 하나님, 저희에게 당신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땅의 평화를 기원하며, 저희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19일, 금요일

정의는 깨어진 약속을 바로잡는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요한복음 14:27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약속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층의 권리가 유기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 없이는 정의가 없다. 정의와 평화는 공존하며, 하나를 찾으면 다른 것도 찾게 된다. 평화는 국가, 나라 및 개인 간 전쟁의 종식을 추구한다. 평화는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등을 없애려는 삶 속에 살아 있다. 평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과 존중을 의미한다.

체로키어로 평화라는 단어는 *도히이*이다. 수 세기 동안 미국 원주민은 조약 위반과 약속의 불이행을 경험했다. 주권을 가진 부족국가인 체로키 국가(Cherokee Nation)는 오클라호마 주가 되기 68년 전인 1839년 9월 6일 헌법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족으로, 50개 주 전체에 걸쳐 38만 명 이상의 부족 시민이 있다. 오클라호마 북동부의 부족 보호 구역 내에는 141,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체로키 국가는 국민의 주권, 문화, 언어 및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강 및 인적 서비스, 교육, 고용, 주택, 경제 및 기반시설 개발, 환경 보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모든 것은 깨어진 약속을 바로잡고 정의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약속을 이행하려는 존중과 결의에서 시작된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는 체로키 사람들에게 만연한 불의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눈물 흘리는 길을 걸었던 이들과 함께 우리가 걷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과 구속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20일, 토요일

이민자를 위한 평화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  
잠언 12:20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될 때의 고통스러운 감각은 감정적인 고통에 이르게 한다. 이는 평생 느끼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중 하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스페인어로 평화라는 단어는 *파스*이다. 망명을 원하는 중미 가정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에서 “인도주의 및 국경 안보 위기”라고 불리는 문제를 야기했다. 2019 회계연도에 미국-멕시코 국경의 밀입국자 체포 건수는 12년 만에 연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록된 851,508건의 체포 건수는 전년 (396,579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망명을 원하는 이주자 중에는 과거에 다수를 차지했던 독신 성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56%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로 이루어진 북부 3개국 출신으로, 폭력과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이는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멕시코인이었던 2000년대와 2010년대 초에 비해 달라진 변화를 보여 준다.

이 가족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억압적인 방식에 맞서 대항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 가족 및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좌절감을 이해하며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오는 소망을 제공한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울고 있는 이민자 자녀들이 밤에 단잠을 자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와 떨어져야만 했던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을 무관심에서 연민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사순절 첫째 주

### 2월 21일, 사순절 첫째 주일 나이지리아를 위한 평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에베소서 2:14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적대 행위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그것은 다른 국적과 부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같은 그룹의 사람들 간에도 발생한다.

이그보(나이지리아)의 평화라는 단어는 우도이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는 테러리스트 그룹인 보코 하람에 의해 테러를 당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6,000명의 나이지리아인이 사망하고, 2백만 명이 재정착했다. 2020년 12월, 이 그룹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중학교에서 300명의 소년을 납치했다. 테러범들은 그 성탄절 전야에 기독교 마을인 페미에서 11명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직자를 납치하고, 성탄절 선물과 약을 훔치고, 지역 병원에 불을 질렀다. 6년 전, 성탄절에는 200명의 여학생을 납치했다. 2020년 성탄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지리아를 포함하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위해 기도했다. 나이지리아는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평화는 폭력의 부재를 요구한다. 평화는 무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 평화는 정의와 공정한 관계의 결과이다.

*정의를 사랑하며 평안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저희에게 계시하신 대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폭력이나 무고한 아이들이 납치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22일, 월요일** **토착민들을 위한 평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 이사야 26:3*

우리를 완전한 평화로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완전함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우리는 잘못했을 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온전한 평화를 축복으로 가져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을 때 주어진다.

라코타의 평화라는 단어는 *윌라코타*이다.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520만 명 또는 미국 인구의 약 2%가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이다. 미국 내 원주민은 기대 수명, 정치 참여, 경제적 기회에 있어 충격적일 정도로 뒤처져 있다. 제도적으로 유린을 당한 원주민 부족에게 미국 정부는 법적으로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데브라 할랜드 의원은 미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뉴 멕시코에서 온 60세의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수하의 새로운 내무 장관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미 원주민 내각 각료이다. 그녀는 35개 주에 걸쳐 위치한 574개의 주권 부족 국가 중 하나인 라구나 푸에블로의 시민이다. 내무 장관으로서 그녀는 “기후 변화 우선 순위, 부족 협의 및 녹색 경제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평화라는 선물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들의 삶은 그들을 마땅히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터 오는 억압, 위반, 착취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희생적인 죽음으로 돌아가셨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부활하셨다.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우리의 행동이 당신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인도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외적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내적 평화를 약속합니다. 당신의 원주민 자녀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곁에 서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23일, 화요일 한국을 위한 평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빌립보서 4:6-7

평화는 상황을 초월한 고요함이나 평정심이다. 성경에서 “평화”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어의 Peace는 한국어로 평화이다. 수세기 동안 한반도는 하나의 통일 국가였다. 1910년부터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35년 동안 일본 제국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나누기 위해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뿐인" 전쟁 동맹국에 의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

1945년과 1948년 사이에 소련은 북쪽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고, 남쪽에는 미국이 군정을 세웠다. 한국 전쟁(1950-53)에서 중공, 소련, 미국 간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최소 3 백만 명이 사망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마을 및 도시들은 폭격을 받아, 이 나라의 모든 지역들의 산들은 없어졌고 모든 도시들은 파괴되었다. 휴전 협정은 1953년에 양국을 나누는 38선을 따라 비무장 지대가 형성되며 분쟁을 종식시켰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신뢰할 때에, 평온한 상태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킵니다.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24일, 수요일 콩고를 위한 평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 시편 85:8-13



시편 85편은 약속의 땅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달라는 이스라엘의 탄원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체험하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기도이다. 이는 미래의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시편이다. 평화와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행위이다.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심은, 곧 하나님이 평화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땅에서 솟아오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에 의해 풍성해진 신실함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물로부터 나온다. 마치 비가 땅에 입맞춤하며, 땅이 음식을 내듯이 말이다.

느툼바 어(콩고)로 평화라는 단어는 *나이*이다. 1997년과 2003년 사이 콩고 민주 공화국(DRC) 내전으로 5백만 명이 사망했다. 1,300만 명 이상의 콩고인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77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2020년 3월 유엔에 따르면, 이는 1년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최근 수치에 따르면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이는 DRC에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정의와 질서 위에 세워진 평화와 다르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더 나은 날을 회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로 당신의 선물을 위해 행동 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월 25일, 목요일

### 평화는 하나됨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골로새서 3:15*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됨의 축복에 대해 쓰고 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교회에 글을 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관해 교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단 교사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 중대한 순간에 처해 있었다. 바울은 예수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심을 강력히 확인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평화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축복이며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제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 살 수 있다. 그 최종 결과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합과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랄 때, 우리는 신실하게 사는 모든 혜택으로 가득 찬 새 삶을 소유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평화의 축복이다.

*평화의 하나님, 분열의 폭이 아무리 넓어도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는 지식으로 우리를 계속 축복하소서. 세상의 분열이 우리의 유산이 아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6일, 금요일**

**홀로 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 창세기 28:20-22*

야곱은 홀로였다. 형 에서를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으로 속인 후 그는 도망쳐야 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면, 그는 충실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느꼈고 심지어 삶에서 버림받기도 했다. 편안할 때보다 곤경에 처할 때, 우리는 믿음의 힘을 더 예리하게 체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나 가장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되었고,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신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기억과 성취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7일, 토요일**

**때로 평화란 헤어짐의 인사를 의미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 출애굽기 4:18*

모세는 자신을 그의 가족으로 받아준 이드로를 사랑했다. 모세는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숨을 낳았다. 모세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으며 책임을 짊어졌다. 무엇보다도 이드로는 그를 노리고 있는 애굽의 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모세가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그를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셨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책임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는 대신, 모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그는 사위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행복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있는 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사순절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 광야로 부르신다.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 힘을 축복으로 주신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자신보다 더욱 크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에도, 그것이 편안함과 안전함의 영역에서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사순절 둘째 주

### 살롬: 평화의 약속으로의 길

*캐서린 고든 저*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 평화는 문제나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폭풍 속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구주가 계신다는 확신이다. 당신의 삶에서 폭풍우 치던 바다가 잠잠케 되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는가? 문제 속에서 당신이 안전하고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가? 당신의 가정, 지역사회, 교회 또는 국가에서 지금 필요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평화의 기도 "나무"에 추가하라.** 지난 주에, 지미 호킨스 목사는 세계 여러 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천 조각을 가져다가 호킨스 목사가 다양한 언어로 나눈 "평화"라는 단어를 평화의 "나무" 또는 난간이나 울타리에 추가하라. 각 단어를 쓴 후, 눈을 감고, 천을 붙들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라. 사순절의 첫 주에 강조된 평화의 단어는 *살롬*(히브리어), *살람*(아랍어), *도히이*(체로키어), *파스*(스페인어), *우도*(이그보/나이지리아), *윌라코타*(라코타), *평화*(한국어)와 *나이*(느툼바/콩고)이다. 불안해 하거나 두려워하는 가까운 이들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라. 그들의 이름을 적고 평화가 그들의 불안을 씻어내기를 기도하라.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 평화는 가장 이상한 곳에서 나타난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누가복음 2:8-11 (개역개정)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 마태복음 4:8-11 (개역개정)

세상의 아이들에게 평화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평화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가장 이상한 곳에서 평화를 선포하신다. 이는 브라스 밴드나 교향곡에서 들을 수 없고, 군사 퍼레이드, 증권 거래소 또는 슈퍼볼에서 볼 수 없지만, 몇 달 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들었듯이, 추운 날 산꼭대기에 있던 목자들의 침묵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생 사막의 고통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사순절의 말씀들이 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 치유의 평화는 유혹과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예수를 천사가 받들던 것처럼 나타난다.

한 친구는 기근이 나라를 황폐하게 했을 때, 식량을 절실히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중동의 난민 캠프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의 그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은 울지 않았다. 굶주림의 침묵만이 있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때, 침묵 속에서 집중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쟁의 소음, 거리의 정치적 시위의 소음, 정치적 집회의 소음은 우리 주변의 깊은 필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조용한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평화의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월 1 일, 월요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요한복음 14:15-16, 27*

세상이 영망이 된 것 같다. 분노, 증오, 식량 불안, 전쟁, 바이러스, 부패 및 폭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곳은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인 듯하다. 세상에 있는 것이 두려움뿐이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 붙들어야 할 것,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며, 이는 우리 삶 전체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두려움의 모든 산물(걱정, 초조함, 불면증)과 두려움 그 자체는 무력해진다. 워커 퍼시는 그의 책 "Lost in the Cosmos"에서 제안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I Love Lucy" 코미디와 같이 아무 힘없고 의미없는 것으로 여기자고 했다. 우리를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우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다. 두려움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2 일, 화요일**

####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 베드로후서 3:11-14*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 평안하도록 인사한다. 주의 날의 도래에 따른 폭력과 파괴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평안하게 살아가고 죄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 가운데 기다릴까?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권에서는 사탄을 다루는 방법이 싸움이나 폭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사탄과의 씨름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추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자. 장로교 개혁 신앙은 선을 위한 싸움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귀한 투쟁을 이해해야 한다.

*주 하나님, 당신 아드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투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투쟁과 승리를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3 일, 수요일

**평화는 권력과 같이 오지 않는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상 1:13-17*

엘리는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다. 힘이 있는 자리였다. 문화에 의해 권력을 갖게 되거나, 종교에 의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면, 타인에 대한 자애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리하여 권력을 지닌 이 남자도 여인이 술에 취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 여인이 삶과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드디어 그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멈춘다. 그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바를

행하고, 이 여인을 위해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한다. 이 여인 한나는 다윗왕에게 기름부은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다.

목사는 오늘 하루 힘들었다. 모든 교역자가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도 집에 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었다. 그가 교회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다. "길거리의 여느 술 취한 사람들과 똑같네"라고 그는 생각했다. "바로 지금 도울 필요는 없을 거야." 그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눈길을 외면했다. 그러나 그는 죄의식을 느끼고 결국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문에 서있던 남자가 물었다. "54번 버스가 저 모퉁이에 섭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위해서 돌아가신,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목사는 자신 앞에 서서 버스 노선을 묻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평화를 키워서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가진 권력과 오만함 때문에 눈이 어두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와 나눌 수 있는 평화를 분명하게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저희 모두를 위해 죽으신 바,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4일, 목요일**

####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 이사야서 52:7*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상점에서 직접 구할 수 없는 것을 UPS와 아마존의 빛나는 트럭들이 가져다줄 때 이들은 참 멋져 보인다. 이 트럭들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가져다준다. 이들 트럭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예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전했던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나눈다면 이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 이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하지만 사순절 기간은 이러한 아름다움이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며 때리는 일을 통해서 절정에 이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또 공회, 빌라도, 헤롯이 예수를 심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며 장사하는 일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둠을 없애실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어둠을 없애신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선포할 수 있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 평화를 찾게 하시고,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5일 금요일

#### 심리적 번영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  
잠언 12:20

기쁨(joy)이라는 단어는 스코틀랜드 방언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직장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다. "기쁨이 있었어?" 이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는 심리적 번영이다. 이는 거의 영적인 의미이다. 기쁨이 있을 때, 번영하게 된다.

악을 피할 땐 번영할 수 없다. 악을 피하는 것은 기쁨에 대한 소망을 다 쫓아버린다. 다시 말해, 악한 일을 계속해서 계획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 어떻게 목사님 없이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험담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혐오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기쁨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심리적 번영을 가로막고, 우리에게서 평안을 없애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속임의 위험이 항상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모든 것의 핵심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평화이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의 모든 생각과 기도와 행위가 속임이 아니라 평화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6일 토요일

**평화, 하나님의 선물**

*그 곳 이름을 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창세기 28:19-21*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관절을 부러뜨리셨고 이로 인해 그는 남은 평생동안 다리를 절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은 사랑 가득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부러진 고관절과 차가운 돌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이다.

전염병과 씨름하며 치료를 보장받고 백신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이는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 이런 장면이 있다. 유대인 노부부가 소 달구지에 실려 시베리아 폭풍 속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 가고 있다.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감싸고 있었는데, 이들 주위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밤이 되면서, 이들은 사랑스럽게 입맞춤을 했다. 임박한 죽음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들은 위안을 얻었다. 입맞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으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평안을 찾았다. 그 평안이 있었기에 이들은 매우 힘든 여정에서 견딜 수 있었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당신이 베푸시는 사랑이 저희에게 주시려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저희가 줄라서 받은 선물이 아니나이다. 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평화를 주시는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순절 셋째 주

### 샬롬: 회복으로의 길

*캐서린 고든, 수전 림 저*

**생각해 보라:** 히브리어로 "평화 (shalom)"는 온전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하셨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그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슬픔의 치유였으며, 산산조각 난 꿈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 사순절에 당신은 어떤 치유가 필요한가? 당신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삶 속에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상처를 딛고 서서 다른 이들에게 샬롬, 곧 온전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의 평화 기도 "나무"에 추가하라.** 지난 주, 이 사순절 매일 묵상은 두려움을 없애는 평화, 기쁨을 만들어내는 평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볼 수 있는 평화에 대해 말했다. 당신의 기도 "나무"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간구를 더하라. 그들의 이름 (필요하다면 당신의 이름)을 천이나 종이에 적으라.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 치유와 온전함에 대해 생각하며, 사순절 셋째 주를 준비하라.

###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 평화로운 안식이 가능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 시편 4:8*

지속되는 전염병의 또 다른 피해는 깊은 잠의 부족이다. 하버드 T.H. Chan 공공 보건 대학교에 의하면, 불면은 신체의 건강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한다. 주변을 돌아보라: 수면 보조 기구에 관한 광고와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하는 스마트 기기 앱에 대한 광고가 늘어났다. 수면 보조 기구나 앱을 한쪽으로 치우라. 이 사순절 기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어보라. 그렇게 해서 온전함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찾아보라.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고백, 참회, 용서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이런 행위를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마음과 영혼을 편안하게 해준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고 잠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근본적인 깊은 평화로 나아간다. 또한 숙면으로 나아간다: 잠들기 위해 숫자를 세지 마라. 축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셔서, 잠자리에 들 때, 평화가 우리를 덮는 이불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8일, 월요일**

**살짝만 고치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에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 로마서 14:13-21*

세상에는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들 중 많은 것들은 머리 모양, 먹는 것, 옷 입는 법 등과 같이 참 모호한 것들이다.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예배 시간, 방법, 장소와 같은 것으로 인해 평화가 깨진다.

몇 년 전에, 에딘버러에서 목사들과 랍비들이 모였고 범종교 예배에 무슬림을 포함시키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슬림 회원들은 기획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를 조직한 이들은 무슬림 공동체 기도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만났던 것 같다. 이들은 간단한 것 하나를 고쳤다: 이슬람의 기도 시간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또 예배에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들은 범종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맘이 기도하는 순서를 넣었고 이슬람 기도 시간에 딱 맞추어 이맘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였다. 기도 시간이 되자, 이맘은 기도 시간이라고 알렸다. 그는 기도 방식을 교회에 내려놓았다. 범종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무슬림들은 기도 방식을 통로에 깔고 늘상 하던 대로 기도했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각각 의자에서 기도했다.

얼마 후에, 이맘의 출신 국가에서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 범종교 예배에 참석하고 이를 기억하던 이들이 이를 희망과 치유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는 것은 간단했다. 다른 이들의 방식들을 듣고 이해했으며, 존경과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옳고 그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는 치유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9일, 화요일**

**평화는 우리를 세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 데살로니가전서 5:12-13*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무너진 세상을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치유할 사명을 받았다. 빌리 왓킨스는 모든 목회자가 원하는 성도 유형이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경우에, 빌리는 가장 먼저 도우러 나타났다. 그는 무엇이 고장났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기 전에 고쳤다. 누군가가 배고프고 아프면, 가장 먼저 음식을 그 가정에 가져다주었다. 노조원으로서, 그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시위대 맨 앞에서 있었다.

빌리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주일에는 그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자면서 말합니다"라고 말했다. 빌리는 잠잘 권리를 가졌다고 목사님이

말하자 성도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목사님은 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증거를 전하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십자가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만찬장의 상석에 앉거나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다른 이를 섬기며 스스로를 위해서 특권과 직책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아픈 자들을 치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 이방인이나 적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이 만든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모든 이들, 적까지도 사랑하도록 부르셨음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0일, 수요일**

#### **평화가 우리를 안정시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 누가복음 1:78-79*

세상 속 끊이지 않는 부정적인 소식, 갈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집에서 TV 나 보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약"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힘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방법은 우울함을 더 영속시킬 뿐이다.

스스로 치유하려 하지 말자. 우울함을 더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는 밝은 빛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움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시편을 통해 위로를 얻자.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을 떠올려보자. 바로 이 때 우리가 찾던 그 빛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 되기 시작한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며 TV 와 포도주는 우리에게 더이상 치유제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한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암울함을 떨쳐버릴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비로  
향할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1일, 목요일

####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를 다시 설정하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13-18

지혜, 이해, 금, 은 보석, 즉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또 장수가 모두 당신의 오른손에 있다.  
당신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뭇가지라고 생각해 보라. 멋있는  
모양의 나무, 즉 잎, 꽃, 열매가 잘 균형잡힌 나무일 것이다. 여기에 영양분이 흐르게 하는  
줄기를 더하면 나무가 완성된다. 줄기는 나무가 자라나는 데 있어 중심이 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와 달리 흐트러져 있다. 평화가 없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대립하고 있다. 해답은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무기가 아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다. 해답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 우리 삶의 각 영역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기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이 치유를 받는다.

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자비와 사랑, 예수가 처형된 그 나무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평안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2일 금요일

#### 주를 기다리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 시편 39:7

제자들은 3년동안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예수가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선포할 날만을 기다렸다. 어떤 이들은 큰 희망을 품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왕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같이 앉을 꿈을 꾸었다. 유다는 그 왕국의 재무 담당자가 되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을 기대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고 칭송받기를 원했을지 모른다. 분명히 그들은 부가 늘어나고 꿈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스승은 체포되어 심문받고 구타당하다, 여느 범죄자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정말로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예수의 제자들로서 그들은 수고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을 기대했다. 그들은 가족들과 생계까지 다 포기하고, 급진적인 설교자와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사물들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인내하며 이 희망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여정이다. 사순절을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소망을 발견할 것이다. 치유를 발견할 것이다. 사순절 여정의 끝에서, 십자가와 무덤 너머에서,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약속을 발견할 것이다.

*주님, 당신은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저희의 힘이시요 구원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마음에 당신이 머무실 공간을 만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3일, 토요일**

#### **진정한 우정**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15:13-17*

진정한 우정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다"고 하심으로써,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의 우정을 주신다. 예수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는 친밀함에서 나온 우정이다. 예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고자 부르고 계신다.

우리와의 우정을 위해 예수는 그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갈보리로 향하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했다. 우리와 우정을 맺으면서, 예수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르신다. 우정은 단순히 우리 둘, 즉 그리스도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예수가 초청한 모든 사람들 사이의 것이다. 그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에 기초한 공동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다.

*주님,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내미시는 우정의 손을 잡게 하시고 당신의 우정에 합당하게 하소서. 십자가 상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에게 친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사순절 넷째 주

### 샬롬: 소망으로의 길

*수전 림, 아이비 로피디토 저*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새날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소망을 붙들긴 쉽지 않다. 사순절 기간에 당신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당신의 평화 기도 "나무"에 추가해 보라.** 지난주에, 매일 묵상은 치유와 온전함에 대해 얘기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당신의 기도 "나무"에 추가하라.

###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일

####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 로마서 8:24-25*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 우리는 일생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간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COVID-19 감염률, 입원율, 사망률이 정점에 이르러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곧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모든 이들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 일하며, 더 강한 국가를 이루기를 희망한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관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지금보다 덜 혼란스러웠을 때조차,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예배는 암기해서 반복하는 것이 되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은 무뎠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총천연색을 가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의 하나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반영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방식이었다. 즉 일출과 일몰, 태양, 달, 별, 사계절, 산과 바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도록 부르신다.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평화롭고

풍성한 세계를 기다리면 어떨까? 우리의 상상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소망은 저희가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큼니다. 기쁨, 정의, 자비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깨우는 당신의 소망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15 일, 월요일**

####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 시편 27:4*

"사순절 (Lent)"이라는 단어는 '봄'을 뜻하는 고어체 영어에서 나왔다. 사순절은 봄의 계절, 탄생, 회복, 재생의 계절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봄은 새 생명이 자라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희생을 체험하기 위해 사순절에는 금욕을 실행하곤 한다. 초콜릿과 같은 기호품을 금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금욕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금욕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한 방법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공간을 만드는 영적 실천사항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현대인의 삶의 급한 마음, 근심, 염려에서 잠시 벗어나, 매일 몇 분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안에서 쉬을 얻으라. 이를 간절히 원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라.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새 생명이 당신 안에 태어나게 하라.

*주님,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묵상의 시간을 만들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 안에서 쉬으로써, 새 생명이 저희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16 일, 화요일**

## 여전히 소망은 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 요한계시록 21:1-5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는 COVID-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소망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인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며, 새로운 세상을 보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하나님 안에 굳건한 소망을 두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겠는가? 영생토록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겠는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간애를 같이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는가? 우리는 왜 우리의 소망에 대해 부끄러워하는가?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가련하고 두려운 절망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다. 거짓된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절망은 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영광을 기대하지 않게 만든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누군가 과감하게 더 큰 소망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과 더불어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과 하나님 권능 안에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은 그가 가진 소망과 함께 자랄 것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저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당신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7일, 수요일

#### 사물의 이면을 보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 이사야서 26:4*

열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실망한 적이 있었는가? 현실에 부딪히면, 열정은 식어버린다.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없어 실망하고 일을 포기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에 한 발자국 정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사순절 여정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다"고 격려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고 하셨다.

이번 사순절 여정 너머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소망을 나누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를 공급하실 것이다. 좋은 결과가 보이는가?

*주님, 당신에 대한 신뢰가 저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당신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8일, 목요일

#### 산 소망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 베드로전서 1:3b-4*

우리 대중문화는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을 갈망하는 것 같다: 원더우먼, 엑스맨,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수퍼맨. 초능력으로 그들은 건물을 뛰어넘고 초인적 힘을 통해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

그러나 이번 전염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란 매일 매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요양원 의료봉사자들, 우체국 직원, 우편 배달부, 운전사, 식료품 계산원, 트럭 운전사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사회가 기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람이다. 우리의 일상의 영웅에게 감사한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사명을 이루신다. 그는 소외된 자, 보통 사람, 사회에선 영웅으로 취급받지 못할 사람을 택하신다. 막달라 마리아, 세리 마태, 성모 마리아도 그러하다. 이를 생각해 보라: 사울은 힘세고 잘생긴 용사였지만,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십 대 소년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는 분명한 약점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일상의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지금 사순절 묵상집을 읽고 있다. 바로 당신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실 영광과 은혜에 대한 소망을 묵상함으로써, 훈련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에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영원한 권능을 받아 세상을 치유하는 일상의 영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이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월 19 일 금요일**

**화해는 무엇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 고린도후서 5:17-18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화해를 가져오고자,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깊은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화해는 내가 그리스어를 공부하며 되돌아보고 그 뜻을 연구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어 원어는 *카탈라게* (*katallage*)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간의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이다. 용서의 단계를 넘어, 깨진 것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일컫는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모든 적대 관계가 해소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화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강력한 회복과 희생을 다시 깨닫길 바란다. 세상이 알게 될 위대한 사랑의 예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화해시키기 위해 당신께서 깊은 사랑으로 주신 희생을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서 평화와 희망을 주십니다. 화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성장하게 하시고, 당신을 본받아 저희의 소명인 화해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월 20 일, 토요일**

**용서와 회복**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 마태복음 18:21-22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삶에서 화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우리의 가장 큰 본보기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서 화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화해를 통해 더 큰 평화와 하나됨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삶과 인간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본문을 삶과 인간 관계를 들여다볼 렌즈로 활용해 보자. 일곱 번까지 용서하고, 회복의 깊은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좀 더 온전한 공동체에 이르게 할까? 과거에 행한 잘못과 피해를 보상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까?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관계 맺은 이들과의 화해를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도록 기도한다.

*주님, 저희를 강건케 하셔서 용서와 회복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는 온전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사순절 다섯째 주

### 샬롬: 회복으로의 길

*크리스천 브룩스 저*

**생각해 보라:**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셨음을 깨닫는다. 몸과 영혼을 모두 고치신 것이다. 성주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성금요일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우리는 부서진 세상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 여정을 잠시 멈추고 공동체에 다가가 샬롬(평화)를 나눌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평화 기도 "나무"에 추가하라.** 지난주 매일 묵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소망에 대해서 다루었다. 기도 "나무"에 이 세상을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덧붙여보라. 굶주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 가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 이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리라.

###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 모두가 넉넉하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개역개정*).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을 생각할 때, 고통이나 억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한다. 나는 억압받는 이가 누명을 벗는 세상을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세상을 말이다.

나는 모든 이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떠올려본다. 모두가 음식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신다. 모두가 살 곳을 가진다.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다.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 같은 '주의'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떠올려본다. 더 이상 가부장제, 동성애 혐오, 외국인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또는 편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창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쳐 쓰러진 자의 편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침묵하는 자를 대변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보장하는 더 나은 정책을 옹호할 수 있다. 올해,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광야에서 나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주여, 고통과 억압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22일, 월요일

#### 회복시키려 하면 항상 반대에 부딪힌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잠언 21:15*



잠언의 이 구절은 세상을 회복시키려 할 때, 모든 이가 그 과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길로 나아가실 때, 현상 유지를 바라는 권력자의 반대와 마주하셨다.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평등을 향해 계속해서 싸울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이데올로기 위에 세워졌고, 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이분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분법은 "가진 자"가 권력과 자원을 갖기 위해 "못 가진 자"로부터 이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불건전한 생각 때문에 토지 약탈과 노예화가 일어나서, 많은 집단의 사람이 억압받는 상황이 생겼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오래 전에 일어났지만, 건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념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구조에 깊이 박혀 있다. 몇몇 미국인은 이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신봉한다. 어떤 이는 진보를 기뻐하지만,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떤 이들을 진보를 두려워하고 삶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하여 억압된 이들을 위하여 정의를 구하라는 소명 아래 전진하여야 한다.

*주님, 저희가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때, 반대하는 이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붙들게 하소서. 그리고 옳은 일을 향한 투쟁을 계속하고 억압받는 이를 해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23 일, 화요일

#### 정의 수호를 향한 믿음 찾기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4-16

나는 에스더서를 좋아한다. 특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려고 애쓰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걱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 대로 살기 시작한다. -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고 그녀의 민족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에스더와 같을 것이다. 옳은 일을 옹호하기 위해 안락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에스더 같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락한 상태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매일 우리는 경찰의 총에 의해 또 한 명의 흑인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일을 본다. 교도소에서 아이들은 동물같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 최근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자 억압 전략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살롬의 길을 탐구할 때, 에스더의 예를 기억해야만 한다. 해방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여, 에스더처럼 저희 중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를 두려워합니다.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처럼 저희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여, 저희가 믿음 안에서 발을 내딛고 정의를 찾으라는 부르심 안에서 전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4일, 수요일**

**도전자 그리고 해방자이신 예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누가복음 4:18*

우리가 십자가까지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 분은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 분은 친구가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신다. 그 분은 억압과 부패에 반대하는 해방자이자 도전자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해방자이자 도전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치유와 해방에 대해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실 때,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 분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는 폭도가 생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 분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위임하셨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로서의 소명이 있다.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매일 생활에서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억압적인 제도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낼 소명이 있다. 억압적인 제도는 학대와 억압과 소외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이를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했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목소리를 내셨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밟는 사순절 길은 쉽지 않다. 이 길은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십자가로 이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이 처형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다. 소망은 십자가를 넘어 힘을 발휘한다. 해방자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주님, 당신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향해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5일, 목요일**

**당신이 보길 원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9*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살롬으로 가득찬 삶이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이러한 교훈들로 돌아오셨다. 우리의 사순절 여정 위에서 우리는 자주 암송되는 선지자 미가의 성경 구절로 돌아온다. 그리고 부서진 우리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단어를 발견한다: "행하다" 우리는 정의의 사역에 대해서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구하라고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조직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청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이나 공동체 속에서 불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실수를 용서해주기를 청하고 사과하는 친절함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타인이 변화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주님, 자신 안의 불의를 찾을 수 있는 강인함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저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하라 수 있는 강인함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26 일 금요일**

#### **새로운 현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 3:11-13*

베드로의 두번째 서신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에 대한 소망이 주어진다. 이 소망은 우리가 아직 2020 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되었다. 2020 년에

우리는 전세계 수백만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 사태를 마주했다. 이 전염병 사태는 또한 경제 위기로 연결되어 수백만 명이 일자리나 살 곳을 잃었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2020 년, 뿌리 깊은 구조적 인종 차별과 억압의 유산도 민낯을 드러냈다. 성경은 억압, 고통, 불평등이 없고 사랑과 의로 가득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현재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신앙을 가진 이로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순절은 회개하고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시기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두를 위해 공평한 사회를 다시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 사회 안에 필요한 변혁을 준비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월 27 일, 토요일

#### 하나됨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고린도 전서 1:10

최근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분열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분열은 두려움, 증오, 파괴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됨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복구의 사역을 시작하고 화해로 나아가기 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현재와 과거의 잔혹한 일들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노예화는 미국 역사상 두 가지 끔찍한 사건으로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 사건들은 진실을 파괴했다; 이 사건들은 많은 이의 존엄성과 삶을 박탈했다.

이러한 일은 오래 전 일어난 것이지만, 원주민과 노예가 된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자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고유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을 잃었다. 가족들은 흩어졌다. 땅과 수입을 빼앗겼다.

우리 나라를 하나되게 하기를 바라는 중에, 역사의 일부인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사순절,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치유자의 역할을 맡자. 해를 입은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자.

*사랑하는 하나님, 보다 하나되는 국가로 나아갈 때, 저희를 인도해주소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겸손함과 은혜와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사순절 마지막 주: 성 주간

### 샬롬: 화해로의 길

*아이비 로페디토, 크리스천 브룩스, 도나 프리슈크네트 잭슨 저*

#### 생각해 보라:

샬롬(평화)을 향하는 우리의 사순절 여정이 마지막 주, 곧 성 주간에 이르렀다. 거룩한 도시로 승리의 입성을 시작하는 주간이다. 이곳에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군중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된다. 얼마나 빨리 흐름이 바뀌는지. 하지만 성 금요일의 십자가와, 슬픔으로 흘러넘치는 성 토요일의 눈물의 한 주가 끝나고 나면, 기쁨이 돌아온다. 부활의 일요일이 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화해시키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 주간을 통해 화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여행할 때,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어야 하는 상처, 원한, 증오를 생각해 보라. 화해가 주는 치유의 힘을 생각해 보고 우리 삶 어디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 여러분의평화를 기도 "나무"에 추가하라.

성주간 하루하루 우리가 부활의 약속 안에 가지는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리고 기도를 당신의 기도나무나 기도 난간이나 기도 울타리에 추가하라. 당신 삶 속에서 소망하는 새로운 것들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 3월 28일, 종려주일/고난주일

### 소리 높여 외치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17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9:38-40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정의를 찾으라는 성경의 명령이 주어져 있다. 사람들을 학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착취하는 억압의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회의 부패에 저항하여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르심과 우리가 평화에 대해 이해한 것이 상충될 때, 이 부르심은 어떻게 보이는가? 로마 군인들이 타는 힘센 전쟁용 말이 아닌 초라한 당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시고자 하는 평화를 잘못 이해했다.

사회는 우리에게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가르쳤다. 미리엄-웹스터 사전은 사회 평화를 "민간인 소요 등이 없는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안타깝게도 평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회의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우리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이도록 부름받았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조용하기를 바랐다.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평화는 조용히 있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특권층의 평온을 유지하는 제도를 지속시킨다.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가?

성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가지 질문을 깊게 생각해야만 한다: 정의없는 평화가 세상에 가능한가?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것인가? 돌맹이가 우리를 위해 소리치게 할 것인가?

주님, 성 주간에 저희를 정의로 향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소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우소서. 우리 목소리를 강하게 하시여 옳은 것을 위해 계속 목소리 높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9일, 월요일**

##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 화해를 구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맞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겠어”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위를 둘러볼 때 종종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갈등을 빚는 정당들을 본다. 우리는 제도적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지만, 이것은 항상 반대에 부딪힌다. 우리가 잘 지내던 가족이나 이웃과 갈등을 빚을 때, 평화롭게 살겠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주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도 그리 평화롭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이들의 상을 엮으셨던 것이다.

세상의 갈등과 불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을 쓴다. 이러한 순간, 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떠올린다. 이 연설은 킹 목사가 가졌던 꿈이 그가 사는 현실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 없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암울해 보였지만, 그의 연설은 평등, 정의, 하나됨, 평화, 전체적 화해에 대한 소망으로 차 있다.

우리 주위 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그것들이 특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에 겪었던 것과 비슷할 때, 기억해야 한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어둠의 힘이 커 보일 때, 평화의 꿈이 살아있도록 지키자.

*평화의 하나님, 저희가 주위를 둘러보나, 때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할 때도 기도합니다. 저희가 화해와 평화의 소망을 불러오는 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월 30 일, 화요일**

**급진적 화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1:23-27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23-24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 처형으로 끌고 가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보여주시듯, 긴장이 계속되고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화해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세상의 관계들 안에서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봉헌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기 전에, 다른 이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다면, 가서 화해해야만 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족을 다른 가족과 대립하게 만들고, 평생 우정을 망가뜨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만든다. 나는 형제나 자매와 항상 화해하거나 화해하려 노력하고 싶지 않다. 때때로 가장 쉬운 일은 분노와 혐오와 적대감을 우리 안에 담아두었다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 감정들을 밀어내 버리는 일인 듯하다.

오늘날 화해는 급진적인 일처럼 보인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진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적대감을 품고 있는 누군가와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번주 용서와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천천히 내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독소들이 사라지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자.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천국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급진적인 화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점점 어려워 보일 때에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31일, 수요일

겸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요한복음 13:1-11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창세기 33:3-4

최후의 만찬 동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시어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기 오래전의 이야기, 성주간에 나눌 겸손함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구약 이야기는 복수와 분노와 기만에 대해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 시작부터 우리는 두 소년이 매우 다르다는 것과 계속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형제의 경쟁 관계는 아버지 이삭의 삶이 끝날 때 치열해졌다. 그들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줄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 어머니인 리브가와 막내 아들인 야곱은 이삭을 속여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였다. 에서는 완전히 속은 것을 알고

피폐해졌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야곱은 달아나고 형은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둘은 서로 멀리하게 된다.

화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야곱이 형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득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에서를 처음으로 만나던 날 그는 형 앞에서 겸손함의 표시로 절을 하였다. 그는 그가 형을 속인 것과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형에게 다가갔다.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다가가는 것은 화해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며, 사이가 많이 멀어졌던 두 형제는 포용하게 된다.

화해가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관계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보통 양쪽 모두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겸손함은 도전이 되지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년이 걸렸음을 잊지 말자. 그의 결정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야곱은 겸손함을 보였고 이것을 통해 두 형제가 포용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겸손함을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관계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소서. 저희가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타인의 발을 씻게 도와주소서. 겸손함과 저희 연약함으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 월 1 일, 세족 목요일**

#####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잠언 89:14*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위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알리셨다.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 하셨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만찬 자리를 떠난 유다임을 알고 있다. 친구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친구를 넘겨주는 끔찍한 일을 하러 자리를 떠난 것이다. 하지만 유다가 자리를 떠나고 그가 저지를 일을 우리가 알게 된 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다른 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라는 것이다.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계명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한다. 선택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성 주간의 이날이 "세족 목요일(Maundy Thursday)"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먼디(Maundy)*라는 라틴어는 "명령"을 뜻한다.

사랑은 명령이며 이 사랑은 화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화해는 평화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내적 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의와 잘못된 것을 복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양측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일반적으로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편과 범죄자의 정의를 요구하는 편이 있다. 물론 모든 관계는 고유하다. 하지만 정의는 한 때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어려운 작업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의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고,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소명이다. 이것이 샬롬의 핵심이고, 우리가 우리 삶과 공동체에 사랑과 화해를 가져올 기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 월 2 일, 성금요일**

##### **화해의 십자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요한복음 16b:-17*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로마서 5:10*

사순절 여정은 우리를 골고다로 인도한다. 골고다에서는 화해의 궁극적인 모습이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다. 바울의 글을 읽으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화해의 작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화해시키시는 자이며,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 화해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강력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이 화해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길 바란다. 그 깊은 사랑과 회복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주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화해의 구원하는 힘을 아는 이답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드님이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화해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월 3일 성 토요일**

##### **옳은 일을 행하기**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복음 17:57-61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3

잠언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바로 그 일을 했다. 그는 예수님께 적절한 장례를 치러드리는 옳고 정당한 일을 하였다. 그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할지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욕적인 호칭이 붙은 급진적인 떠돌이 랍비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마련한 무덤을 내어준 것에 대해 부자 친구들이 뭐하고 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그늘에서 나와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서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누구나 뒤편에 편안히 서

있고 조용히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옳은 일을 하려면 진정한 강인함, 용기, 사랑이 필요하다. 성 토요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옳은 일과 정의를 하도록" 설득하나요?

*주님, 저희에게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보여 주소서. 편안한 지역에서 걸어 나오게 도와시고, 옳은 일을 할 강인함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 월 4 일 부활절 일요일**

##### **견뎌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누가복음 24:1-12*

*아침형 인간이 아니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이것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내 옆에 서 있던 키 크고 건장한 대머리 농부가 한 말이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활절 일출 예배 아이디어에 대해 투덜대고 있었다. 왜 성경 속 여성들은 무덤에 가기 위해 알람을 오전 9시에 맞춰 놓지 않았던 걸까? 커피 세 잔을 마실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섬기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새벽이 오기 전 일어나는 것은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가락이 추위로 인해 감각이 없어진다. 육신거리는 무릎도 무감각했으면 하고 바랬다. 예배를 드릴 장소인 무덤으로 갈 때 묘비에 무릎을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 예배는 에큐메니컬한 모임이었고, 갓 미국장로교 목사가 된 나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심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인도하셨다. 목사님은 활기찬 인사를 했고 이 인사는 키 크고 건장하고 대머리인 농부가 나를 교활하게 쳐다보게 만들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었고 강론을 하고 민첩한 손가락으로 성찬식 빵을 쪼갰다. 손가락? 나는 내 손가락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미리 준비해놓은 메모도 보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했다. 내 차례가 왔다. 폐회 기도가 적힌 종이를 찢고 글을 읽기 위해 손전등을 켰다. 힘이 빠진 나의 "아멘"과 함께 예배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서둘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추위 때문은 아니었다.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었던 것이다. 아직 어두웠다. 부활절 일출 예배는 일출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난 생각했다. 새벽의 처음 빛을 보기 위해 난 동상의 위험을 무릅썼다. 하지만 이걸 태양(sun)을 보려는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들(the SON)을 보아야 했다. 나는 이 공동체에 부름받은 것 자체에 의심이 들었다. 맨하탄에서 패션 에디터였던 내가 왜 이 작고 어려운 공동체에 오게 되었을까? 부활절에 어둡고 추운 무덤에 왜 있는 거지? 여길 떠나야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어디로 부르시려나?

그 때 모두가 무덤가를 떠난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키 크고 건장한 농부도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그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당신과 함께 해 뜰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픽업 트럭을 타고 무덤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작은 마을이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트럭에서 나와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농부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랐지만, 내 것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검은 하늘이 회색이 되기 시작했다. 금방 분홍과 오렌지색이 지평선에 나타났다. 내 무거운 마음도 하늘을 따라 가벼워졌다. 밝고 둥근 것이 빛을 발하며 나타났을 때, 그것은 하늘의 팔이 나를 안아주려고 뻗어 나오는 것 같아서, 내 눈가가 축축해졌다.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농부로부터였다.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견뎌 보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다.

일반 예배가 끝난 오전 늦게, 나는 일출을 같이 기다려 주어 고맙다고 농부에게 말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물었다. 그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 추운 부활절 아침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어두울 때 모두가 떠나버린 것을 기억한다. 이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기 전 얼마나 많이 재빨리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만일 내가 고군분투하던 교회의 어두운 날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결코 사람들의 삶이 부활하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 햇빛이 빛나고 죽음이 물러남을 체험하는 순간들 말이다.

이번 부활절에 햇빛이 나오려면 영원히 걸릴 것 같더라도 견뎌 보자. 부활절은 새로운 날이 온다는 약속이니까 말이다. 소망은 빛난다. 그리고 빛이 나오기 전 어두움으로 돌아설 유혹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키 크고 건장하고 대머리인 천사가 당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견뎌 보자"고 속삭일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신 하나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아드님,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밝게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계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듣고 평화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샬롬으로의 길

평화와 온전함을 향한 사순절의 여정

2021 년 1 월

Presbyterians Today  
Presbyterian Church (U.S.A.)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pcusa.org/today • [today@pcusa.org](mailto:today@pcusa.org)

이 묵상집은 자유롭게 전재, 배포, 복사 또는 발췌 할 수 있습니다.